

21

통 일 중 시

北韓의 政治社會化 過程

教授 金 京 雄

통일연구소

차 례

1. 序 言	3
2. 政治社會化의 概念과 北韓에의 適用	6
가. 分析概念으로서의 政治社會化	6
나. 政治社會化를 보는 北韓의 觀點	13
3. 北韓 政治社會化의 基本性格과 內容	20
가. 本質的 屬性과 特徵	20
나. 基本內容과 事例的 接近	29
다. 北韓 政治社會化의 方法과 媒體	41
4. 北韓 政治社會化의 結果와 展望	47
가. 劃一化된 ‘鬪爭的·順從的’ 二重構造의 人間型	47
나. ‘위로부터의 教育’의 限界와 展望	50
5. 結 言	56

1. 序 言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다.

오늘의 歷史가 지난 날은 물론, 앞으로 펼쳐질 미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나라 안팎에서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여러 흐름들은 이제 外樣으로나마 큰 틀을 그릴 수 있을 듯도 하다.

이를테면, 20세기가 革命과 理念, 戰爭이라는 격랑의 시대로 점철되었다고 할 때, 21세기는 상대적으로 사뭇 다른 전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가오는 21세기는 인간의 自由와 福祉가 중시되고 科學技術과 經濟, 市場이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리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던(Z.브레진스키 교수는 다소 예외로 하더라도) 동구 공산권의 變革과 옛 소련의 붕괴, 그리고 冷戰體制가 재편되는 연장선상에서 전면적인 國際秩序의 탈바꿈이라는 세기적 흐름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라 밖의 큰 潮流는 비유컨대 어둠의

시대를 지나 밝고 열린 시대를 바라는 變化에 대한 염원이 바탕에 깔려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우리의 관심은 단선적인 놀라움을 넘어 산적한 實踐課題들 속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일기 시작하여 20세기 초의 불세비키 혁명으로 급속히 번졌던 共產主義가 1백여년 만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가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分斷의 현실을 극복하고 民族再統合을 이루어 내는 일은 이제 견실한 준비단계를 거쳐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꿈을 만하다.

1948년 남북한 두 체제가 각자 자기의 正統性을 내세우면서 출발한 지도 50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世界戰爭史에도 남을 만한 기록적인 相爭을 치렀고, 총체적인 대립과 갈등, 이데올로기에 속박되어 미래지향적인 민족의 位相을 제대로 그려 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과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단순히 흘러간 한 세대만의 경험으로 될 수 없다. 곧 民族史에서 함께 나눠 갖는 경험으로, 또한 時間的 概念만이 아니라, 남북이라는 삶의 터전인 空間的 概念

으로 확대해서 다시금 인식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같은 인식의 출발은 우리 자신이 이미 예전의 韓國이 아니며, 北韓 역시 우리와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그렇다면 南北이 서로 과연 얼마나 달라져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前提이자 주요 課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政治社會化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일차적인 의의는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 轉換期 또는 危機狀況¹⁾이라는 진단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사태진전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으로 는 정치적 硬直性和 經濟難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당

1) 북한 체제의 현 위상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저술·논문 등을 참조.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종합보고서(1992. 12)

李庭植·柳世熙 編, 『전환기의 북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金京雄, “북한 체제의 현황과 전망”(인천대학교 통일문제 학술회의 주제발표논문, 1992. 11. 28)

면해 있는 진정한 危機의 본질은 오히려 현상적인 측면보다 내부적 측면, 물질보다는 정신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연구가 지향하는 基本論點 중의 하나이다.

2. 政治社會化의 概念과 北韓에의 適用

가. 分析概念으로서의 政治社會化

政治社會化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학문으로서 연구를 추진해 온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²⁾

2) 일반적으로 정치사회화에 대한 관심은 멀게는 플라톤(Platon)의 『공화국』(The Republic)까지 거슬러 올라가, 교육을 통한 이상국가 수립이라는 주장을 인용하기도 한다(T.Tapper). 또한 孔子의 忠·孝에 대한 연관성 강조라든지, 17~18세기 로크(J.Locke), 루소(J.J.Rousseau)의 사회사상과 독일 철학자 피히테(J.G.Fichte)의 ‘독일국민에게 고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이상으로 민족교육을 위한 투자가 국가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金在泳, 裴燦福).

- ① Ted Tapper, 『Political Education and Stability』(London : Univ. of Sussex, 1976), p.1.
- ② 金在泳,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서울 : 형성출판사, 1990), pp.210-211.
- ③ 裴燦福, “남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 정치교육 변천과정 비교를 중심으로”(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pp.7-9.

특히 1950년대 이후 정치사회화 연구는 정치학의 行態主義 研究와 調査方法論의 발달로 본격적인 진척을 보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축적해 왔던 사회학의 문화와 퍼스낼리티 연구에서도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업적을 쌓은 학자는 하이먼(H.Hyman)으로서 1959년 『政治社會化論(Political Socialization)』을 출간하였다. 이후, 1960년에 접어들면서 정치사회화 연구는 이스턴(D. Easton)을 비롯한 학자들이 개인의 政治的 定向을 습득한다는 수준을 넘어 政治體系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등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였다.³⁾

이러한 연구의 주요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사회화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게 된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서 개인의 政治에 대한 信念

3) J.Dennis, "Major Problems of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2, No. 1 참조. 이 논문은 다음 책에 전문 번역·수록됨.
金京雄, 『정치교육론』(서울: 유봉출판사, 1982), pp.55-83.

體系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 정의가 있다.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로서 政治體制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그에 대한 支持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⁴⁾

정치사회화의 개념은 이 양자와 모두 관련을 맺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두 개념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政治體系的 유지·발전을 지향하는 개인적·집단적인 信念, 價値, 態度 등을 전수하거나 습득하고 행동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4) 金在泳 교수는 이와 관련한 외국의 기존 연구 업적을 두가지 이론화로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微視的 수준의 이론’으로서 ①개인수준 이론(개인이 정치적 정향에 관한 지식, 감정, 평가를 획득하는 과정) ②과정적 이론(정치적 학습이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거치는가에 중점)으로 나누고,

둘째는, ‘巨視的 수준의 이론’으로서 ①체계이론(정치사회화와 정치체계의 연관성 문제, 곧 정치사회화가 정치체계의 존속 및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중점) ②해계모니 이론(정치사회화는 정치이데올로기가 지배계급으로부터 피지배계급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과정에 중점)으로 나누고 있다.

金在泳, 앞의 책, pp.216-236.

수 있다.⁵⁾

이를 보다 類型化하여 연구에 적용해 보려면, 다

5) 이밖에 외국학자들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주요 개념 정의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정치문화와 관련해서는 “정치문화가 형성, 유지, 변화되는 과정”

G.A.Almond & B.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 A Developmental Approach』(Boston : Little, Brown & Co., 1966), p.79.

- ② 개인의 정치성향과 정치체제와의 상관된 시각에서는 “개인이 정치정향과 형태 유형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과정”

D.Easton & J.Dennis, 『Children in Political System : Origin of Political Legitimacy』(New York : McGraw Hill Book Co., 1969), p.7.

또는 “개인이 특정한 정치적 정향과 정치세계에 대한 인식, 감정, 평가를 획득하는 과정”

R.E.Dawson, K.Prewitt & K.S.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Boston : Little, Brown & Co., 1977), p.33.

보다 독특한 견해로는 “정치체제가 전복이나 급격한 변화로부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과정”

A.Morrison & D.McIntyre, 『Schools and Socialization』(Penguin Books, Harmondsworth, 1971), p.127.

- ③ 사회화 매체와 관련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각기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유형을 습득하는 과정”

Herbert H.Hyman, 『Political Socialization :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Political Behavior』(2nd ed.; New York : Free Press, 1959), p.18.

- ④ 비판적인 이론 입장에서는 “대중의 교화과정(mass indoctrination)” 등임.

R.Miliband,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London : Weidenfeld and Nicolson, 1969), p.182.

음과 같은 개념 분류⁶⁾가 유용하리라고 본다. 즉, 정치사회화에 대한 세가지 대표적인 定義—①기존의 政治文化에의 吸入過程 ②정치체제가 표명하고 추구하는 정치이념으로 體制構成員의 가치관과 행위의 일치 ③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忠誠의 誘導라는 개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대체로 볼때 國家建設(Nation Building)이 오래 전에 이루어져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이 文化로서, 制度로서, 그리고 社會構成員의 규범과 행위로서 자리가 잡혀진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 세가지의 정의가 별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政治社會化라는 개념에 融和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건설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삼자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개념에 置重하느냐에 따라 정치사회화의 內容分析, 成果分析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사회화의 내용과 성과는 정치

6) 柳世熙,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의식 형성 비교”, 『북한통치이데올로기연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154-155.

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政治文化, 政治體制가 목표로서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政治理念, 그리고 권력엘리트에 의한 체제의 실제 運營方式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개념에만 치중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정치체제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추구한다고 주장되는 政治理念은 정치사회화의 목표가 되며 권력엘리트에 의한 체제의 실제 운영방식에 해당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忠誠의 誘導은 정치사회화의 실제 내용이 되겠다.

한편 政治文化는 정치사회화에 크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開發途上國의 경우, 국가적 통합 내지 정치발전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문화에의 吸入過程을 곧 정치사회화로 보기는 적합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개념이 어떤 實踐的 目標와 役割을 갖느냐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에 관해서는 그린슈타인(F.Greenstein)의 세

가지 분류 관점⁷⁾을 참고로 한다. 즉 정치사회화의 效率性 및 내용과 연관된 문제로서, 정치사회화는 ①服從的 役割의 습득 ②시민적 역할에 대한 學習 ③구체적인 정치적 역할으로의 사회화를 擔當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정치사회화 연구에 있어서도 일단 위의 세 가지 측면들을 모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북한의 정치사회화 연구는 그 政治體制의 基底를 이루는 정치문화와 지향하는 政治理念, 그리고 政治指導層에 대한 忠誠 誘導 등과의 連繫 分析이 전제가 되며, 그 성과는 정치사회화의 效率性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단지, 어느 측면이 강조되고, 혹은 이것이 다른 측면을 완전히 排除시킨 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 연구의 해당 분야에서 심층 분석을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7) F.Greenstein, "Political Socializa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4, 1968, p.552.

"...acquiring a subject role, learning a citizen role, and socialization into specialized political roles."

T.Tapper, 앞의 책, p.6에서 재인용.

나. 政治社會化를 보는 北韓의 觀點

물론 북한에서는 정치사회화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대신, 넓은 의미로 ‘사회주의 교육’ 전반을 가리키거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사상교양’, ‘주체사상 학습’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명시한 대로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까지”⁸⁾ 一生동안 教育課程을 겪는다는 뜻에서 ‘전민(全民)교육’⁹⁾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정치사회화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용어는 다르나 북한에서도 政權樹立 이래로 정치사회화(좀더 세부적으로는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에 대한 重要性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共通的인

8)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중앙통신사編, 『조선중앙연감』(평양, 1978), p.44.

9) 평양방송(1989. 8. 21.字) 등에서 계속 언급되어 오고 있음.

현상이다.

북한의 경우 정치사회화 과정을 상당히 조직적이고 획일적으로 統制·調整하여 북한 주민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大衆參與(실제로는 動員의 성격을 가짐.)와 大衆統制라는 정치적 현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사회화가 종래 통상적인 해석처럼 大衆統制 위주의 역할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중참여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積極的인 解釋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 정치사회화의 대중통제와 대중참여라는 兩側面을 經線(經線)과 緯線(緯線)의 개념으로 이해·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통제라는 從的인 經線로서의 기능과, 참여라는 橫的인 緯線로서의 기능이 合成되어 촘촘히 새겨진 지구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는 이같은 ‘인간개조’¹⁰⁾의 성과를 소련·동구의 변혁 외풍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¹¹⁾정신적인 原動力으로 삼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구체적인 制度·規範 측면 및 실제적인 運用過程 등은 해당 장·절에서 상술키로 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觀點, 곧 概念問題와 지도층의 시각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사회화 연구는 북한식 관점 그대로 ‘政治思想教養’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로는 社會主義 教育全般과 言論·宣傳·文藝活動 등의 사회문화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사상교양에 대한 북한의 풀이를 살펴보

10)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이래 ‘자연개조·사회개조·인간개조’를 내걸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역시 ‘인간개조’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북한의 이론서는 다음 참조.

강운빈, 『인간개조이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16-18.

11) 김정일,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 5) 참조.

전문은 노동신문, 1991. 5. 27.字에 수록.

기로 한다.

북한에서 정치사상교양과 연관된 용어는 정권 수립 이래 여러 형태로 강조되어 왔지만, 공식적인 文件으로서 ‘政治思想教養’이라는 용어를 登場시키고 그 내용을 體系化한 것은 1977년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서이다.

이 테제는 社會主義 教育의 존재 의의에서부터 사회주의 교육학의 基本原理, 教育內容, 教育方法, 教育制度, 教育機關의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교육 전반에 걸친 ‘經典’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 테제에서는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정치사상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주장시키는 것이다.”¹²⁾라고 하여 개념 규정보다는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풀이를 해놓았다.

북한에서 政治思想教養에 대해 처음으로 개념 규정을 해놓은 文件은 1981년에 刊行된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辭典은 김일성

1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중앙통신사編, 『조선중앙연감』(평양, 1978), p.44.

탄생 70돌을 기념하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編纂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치사상교양 항목을 만들어 상세한 풀이를 하였다.

“정치사상교양 :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도덕적 풍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양.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은 정치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이룬다.”¹³⁾

앞의 「테제」에서 강조한 역할 중심의 입장이나, 이전에 북한에서 발간된 다른 辭典類¹⁴⁾에 비하면 상

1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현대조선말사전』(제2판)(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792.

14) 예컨대, 『현대조선말사전』 이외의 다음 사전류에는 “정치사상적 통일” 항목만 있을 뿐, 정치사상교양의 풀이는 없다.

①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사전』(평양 : 과학원출판사, 1962)

②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③ 『조선문화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④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대적으로 명확한 概念規定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은 북한에서는 ‘정치사업’으로 규정하여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당사업의 기본”인 것으로서,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첫 공정으로 하며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¹⁵⁾한다는 것이다. 『정치용어사전』에서도 ‘정치사업의 선행’(p. 462) 항목을 設定하여 비슷한 풀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制度的·規範的 접근을 통해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최근 북한 指導部의 인식은 정치사상교양이 ‘정권투쟁’, 곧 북한 체제의 存立問題와 직결된다는 식으로 제기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 지도부는 蘇聯·東歐의 ‘사회주의 좌절’이 思想의 動搖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기본인식을 갖고서,

15)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756 및 pp.761-763.

예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사상혁명’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金正日은 “사회주의 사회는 사상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 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명선을 놓치는 것과 같다.”¹⁶⁻¹⁾고 하여 政治思想教養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였다.

그리고는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바로 北韓 體制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점을 이렇게 警告調로 설명하였다. 즉, “역사적 경험은…사상을 자유화하여…반사회주의 정당들의 활동이 보장되면…로동계급의 당을 정권의 자리에서 내쫓는 데로 나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¹⁶⁻²⁾는 것이다.

북한의 政治社會化 과정은 이처럼 교육 현상만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政治現實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또한 教育學을 중심으로 한 영역보다는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일종의 지속적인 革命프로그램

16-1. 2) 김정일, 「당중앙위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1992. 1. 3)
전문은 노동신문(1992. 2. 4.字)에 수록.

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근래에는 북한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이 體制安定과 維持를 위한 주요 방패막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분야의 심층 연구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예측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3. 北韓 政治社會化의 基本性格과 內容

가. 本質的 屬性과 特徵

(1) 黨·國家主導型：強制的·意圖的 政治社會化

북한 정치사회화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特性 중의 하나는 폐쇄된 환경속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이 強制的으로, 또 意圖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각종 정보들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 상황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 배워주었으면 하는 내용만을 翫得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정치사회화인 것이다. 여기서 動員되는 수단은 물리적인 強制力만이 아니라 宣傳·煽動, 象徵操作 또는 教養과

教育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북한에서 요구되는 정치사회화는 현실 그대로 김일성 중심의 정치사상교양이다.

인민학교의 경우, 현재까지 通用되고 있다는 「교육과정안」¹⁷⁾(1983년 제정)에 따르면, 국어·산수 교과서의 關聯部分과 직접적인 政治思想教養科目(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특강, 공산주의 도덕)의 비중이 전체 교육의 67.6%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¹⁸⁾ 이런 實態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教育課程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고등중학교의 경우도 이 「교육과정안」을 참고로 하여 학과목의 名稱만 분석해도 마찬가지이다. 즉, ‘김일성 혁명활동·역사’와 ‘김정일 혁명활동·역사’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을 포함하여 전체 24개 과목 중 6개 과목으로서 科目 比率만으로도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참조).

17)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편, “교육과정안”(평양, 1983), p.5.

18) 文龍麟,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서울: 통일원, 1987), pp.16-17.

<人民學校 教科目과 時間配定>

구 분 과목이름	총 시 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학기 17주	2 학기 22주	1 학기 17주	2 학기 22주	1 학기 16주	2 학기 21주	1 학기 16주	2 학기 21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152	1		1		1		1	
특 강	152	1		1		1		1	
공산주의 도덕	152	1		1		1		1	
국 어	1,142	8		8		7		7	
수 학	834	5		5		6		6	
자 연	222					3		3	
위 생 독 본	37							1	
체 육	304	2		2		2		2	
음 악	304	2		2		2		2	
도 화 공 작	304	2		2		2		2	
계	3,603	22		22		25		26	

[출처] 教育委員會 普通教育部, “교육과정안”(평양:1983), pp.5-6.

※ 교육과정에 대한 북한의 원자료는 현재까지 위 도표가 최신의 것이나, 『북한개요』(서울:동일원, 1992)에서는 ‘특강’대신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로 대체하였고 ‘공산주의 도덕’과목을 삭제, 또 ‘위생독본’을 빼고 ‘외국어’(37시간)를 추가하여 모두 9개 과목으로 설정하였다(p.322).

〈高等中學校 教科目과 時間配定〉

구 분 과목이름	총 시 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학기 16 주	2 학기 20 주	1 학기 16 주	2 학기 20 주	1 학기 16 주	2 학기 20 주	1 학기 14 주	2 학기 18 주	1 학기 14 주	2 학기 15 주	1 학기 13 주	2 학기 12 주
현행 당 정 책	102							(34)	(34)	(34)			
위대 한 수 동 명	184	2		1/2	1/2								
일성 원 수 동 명	197						2	2		3			
위대 한 수 동 명	194							1		1			
특공 산 주 의 도	83	1	1	1	1						1		
국어 문 학	769	5	5	5	4				3		2		
한 의 역 사	246	2	2/1	1	1	1		1	1	1	1		
지 수 물 리 학	496	3	2	2	2	2	2	2	2	2	2		
화 생 자 연	280		1	2	2	2	2	2	2	2	2		
생 독 본 육 약 술	338	2	2	2	2	2	2	2	2	2	2		
자 연 본 육 약 술	1,225	7	6	6	6	6	6	6	6	7	7		
위 체 음 미 약 술	72		2	2	3	4	4	4	4	5	5		
학 생 실 습 (여 자)	384			2	2	3	3	4	4	4	4		
공 작 실 습 (남 자)	370		2	2	2	2	2	3	4	4	3		
계 기 본 (도 시 · 농 촌)	72	2											
전 기 기 본 (도 시)	72	1	1										
농 업 기 본 (농 촌)	302	2	2		2	2	1	1		1			
실 습	140	1	1	1	1	1	1						
학 생 실 습 (여 자)	72	1	1										
공 작 실 습 (남 자)	194	1	1	1	1	1	1	1	1	1	1		
계 기 본 (도 시 · 농 촌)	64						2						
전 기 기 본 (도 시)	58							2					
농 업 기 본 (농 촌)	50											2	
실 습	180								(72)		(108)		
계	6,626	31	32	32	34	34	34	34	34	34	34		
시 험 과 목 수		4	5	6	6/7	6/7	6/7	6/7	6/7	6/7	6		

[출처] “교육과정안”(평양: 1983), p.7.

※ 앞의 「북한개요」에서는 ‘특강’ ‘공산주의도덕’ 대신에 ‘~김정일동지 혁명환동’ ‘~김정일동지 혁명역사’를, 그리고 ‘기계기본·전기기본·농업기본’을 ‘실습’으로 묶어 모두 21개 과목으로 설정하였다(p.333).

따라서 正常的인 정치사회화라기보다는 政治教化 (Political Indoctrination)인 셈이다. 이는 미리 계획된 목표에 따라 機械的으로 工產品을 양산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원래, 民主主義 體制에서의 정치사회화 과정은 非強制的·非意圖的이며, 개성을 존중하는 自發性을 중시한다. 또 국가에서는 制度的 側面的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民間主導型으로 혹은 양쪽의 並行型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와 대칭적으로 強制性和 意圖性, 集團性이라는 틀로써 획일화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國家主導로 만들어 내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의 託兒所에서부터 幼稚園, 인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소년단과 社勞靑의 조직생활, 職盟·農勤盟·女盟 등 성인조직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연결되어 있다.

(2) 道具式 注入型：初期 政治社會化의 強調

初期 政治社會化(Early Political Socialization)는

인간이 일생동안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어린시절에 이루어지는 政治社會化를 지칭한다. 이 시기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세를 前後하여 13세까지로 보고 있다.¹⁹⁾

이 초기 정치사회화 과정은 일생에 걸쳐 가장 重要的 時期이며, 또 나중에 이루어지는 정치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通說이다.

북한의 경우는 幼稚園(낮은반)에 들어가는 4세 무렵부터 人民學校(6~9세), 그리고 高等中學校의 중등반(13세)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태어나서 3개월 후부터 들어가는 탁아소와 유치원(4~5세)에서는 ‘학교전 교육’이라고 하여 매우 중요시한다.

19) 이를 보다 세분하여 초기 소년기(5~9세), 후기 소년기(9~13세)로 구별하기도 한다.

R.E.Dawson, K.Prewitt and Karen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77), pp.49-52.

이와 함께 초기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D.Easton and J.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 Origins of Political Legitimacy』(New York : McGraw-Hill, 1969), pp.120-125.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 제정)에서는 이 ‘학교전 교육’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즉 “학교전 교육은 교육교양의 첫 공정이며… 혁명사상 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잘 하여야 한다.”²⁰⁾고 지적하였다. 또한 「어린이 보육교양법」(1976. 4. 29. 제정)으로는 이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제1조)로 규정, 중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早期教育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정치사상교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꿔 말해 사회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判斷과 適應이 白紙狀態나 다름없는 어릴 때부터 미리 짜여진 정치사상교양의 鑄型으로써 일정한 人間型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는 主體가 아니라, 정해진 틀에 따라 적응되어야 하는 對象이 되는 것이므로 適應의 道具化라고 할 만하다.

북한의 政治思想教育은 早期에 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높은 반(5세)의 正

20)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앞의 책, p.51.

規 教育課程으로 ‘김일성 원수 어린시절 이야기’와 ‘공산주의 도덕’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한 탁아소나 보육원에서도 하고 있는 ‘교양방법’은 북한에서 初期 政治社會化를 강조하는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들이 말을 배우는 3세를 전후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자비하신 아버지’이다. 어린이들은 교실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를 보고서 敎員이 “저분이 누구시냐”하고 물으면 바로 대답하게 된다.²¹⁾ 여기서 또 하나 力點을 두는 것은 集團意識을 함께 기르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어울려 노는 ‘유희활동’을 조직적으로 가르쳐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우선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감사’로 連結시키고 있는 것이다.

(3) 教育過剩型：持續的인 再社會化의 追求

북한에서는 어린이들만이 社會化의 대상이 아니라

21) 『보육원 독본』(평양 : 조선의학서적출판사, 1960), p.410.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서울 : 한백사, 1988), p.64에서 재인용.

일생동안 계속적인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再社會化 또는 강력한 成人社會化는 共產體制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북한식의 표현을 빌리면 “학교전 교육과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결합과 병진”原則이다.

이를테면, 정치사회화 효과의 一貫性和 連續性を 유지하자는 것인데, 성인의 경우는 이렇다. 즉, 각 職場이나 社會團體, 組織 등을 통한 讀報會 개최, 각종 모임에서의 學習과 討論을 통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든지, 김일성·김정일 ‘노작’ 발표 기념모임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들은 실제로 持續적인 再社會化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를 教育過剩·教養萬能社會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再社會化 또는 再教育의 연속적인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劃一性(곧, 개인성의 철저한 차단)이 적어도 外形上으로는 당초 의도했던 바와 같이 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基本內容과 事例的 接近

(1) 肯定·否定的 主題

미국의 한 학자(Ivan Volgyes)가 東歐 共產圈國家들을 대상으로 政治社會化 過程을 분석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는 이들 나라에서 발행되는 50여 종류의 공산당 機關紙들에 대한 내용분석방법도 병용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치사회화의 내용 중에 긍정적인 주제로는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도덕,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등을 강조하였고, 부정적인 주제는 ‘反愛國主義, 反民族主義, 反個人主義’ 등이었다.²²⁾

북한의 경우도 몇몇 예외적인 사례(反愛國主義 등)를 빼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긍정적인 주제로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22) Ivan Volgyes(ed.),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A Comparative Framework』(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5), pp.28-29.

이 책에서는 또한 동구 공산권에서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특징으로 “전반적인 통제와 집중성”(p.1) 및 “재사회화 강조”(p.2) 등을 들고 있다.

무장시키는 것'을 核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0가지 思想教養의 영역을 열거해 놓았다. 그 내용은 ①黨政策 교양 ②혁명전통 교양 ③혁명교양 ④공산주의 교양 ⑤階級教養 ⑥사회주의 愛國主義 교양 ⑦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精神 ⑧사회주의 준법사상 ⑨공산주의 도덕 ⑩사회주의 생활 양식 교양이다.²³⁾

이 내용들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등을 통해 수없이 강조되고 있지만, 너무 장황하고 反復・重複되는 점을 감안하여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⁴⁾

23)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앞의 책, pp.44-45.

24) 각 영역별 내용해석은 일차적으로 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소 불명확한 경우 『정치사전』과 『정치용어사전』의 해당 항목을 대조, 보완함으로써 복합의 해석대로 최대한 접근하고자 하였다.

- ① 당정책교양: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쳐 주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고 당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함.
- ② 혁명전통교양: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도록 함.
- ③ 혁명교양: 노동계급을 혁명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함.
- ④ 공산주의교양: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함.

한편, 근래에 들어서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역시 金正日의 ‘창작품’으로 주장, 그의 偶像化와 관련되어 결국에는 ‘권력승계교양’으로 직결된다.

이를테면, 김정일이 1986년 7월 5일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가진 담화인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언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책자로 묶여 나온 것은 1989년 가을(9월 20일) 평양출판사 명의로 된 『우리민족 제일주의

-
- ⑤ 계급교양 : 노동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며…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함.
 - ⑥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서…조국의 융성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함.
 - ⑦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우도록 교양함.
 - ⑧ 사회주의 준법사상 :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함.
 - ⑨ 공산주의 도덕 :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며…집단주의 정신…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등 제원칙과 규범을 말함.
 - ⑩ 사회주의 생활양식 :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하도록 함.

론』(고영환 저)이다.²⁵⁾

이 理論 자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우리식대로’라는 북한의 現存路線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부정적인 주제로는 전통적으로 反美·反日·反韓思潮와 反資本主義·反修正主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89년 말 동구 공산권의 변화를 목도한 이후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 침투’와 ‘외부 사조의 반동성과 유해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政治思想敎養의 중요성을 기회있을 때마다 力說해 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최근 政治思想敎養의 강화와 지속적인 思想革命推進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생명선’으로 규정하면서,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공산주의적

25) 이 책자는 현 시대를 ‘자주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민족의 자주화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주장하면서 ‘자기 민족 제일주의’는 ‘혁명의 절대적 요구’(p.5)라고 전제하였다. 모두 3개 장 10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은 “오늘 세계의 이목은 조선으로, 평양으로 쏠리고 있다.”(p.127), 수령과 지도자동지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우러러 모시고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려는 신념과 의지가 우리민족 제일주의의 근본핵이며 근본원천”(p.180)이라는 식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변하는 ‘해설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²⁶⁾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는 “소련·동구의 사회주의 좌절은 기술 혁명에 역점을 두고 사상·문화 혁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評價하였다. 그러므로 “사상에서의 자유와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의 다양화라는 다원주의”는 절대로 許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多元主義를 허용할 경우, 사회주의 정권은 存立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므로써 외부 변화의 影響을 遮斷하는 동시에 내부적인 結束을 더욱 다지는 데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26) 노동신문, 1992. 2. 4.字.

이 보도내용은 1992. 1. 3. 김정일이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노선’ 제하의 담화내용을 한 달 뒤에 발표, 게재한 것이다. 북한 지도층의 이러한 인식은 김정일의 다른 담화 내용-‘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 5),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 11. 2)-에서도 大同小異하다.

이같은 金正日의 기본인식은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3개 論文(“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정당이다”(1982),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1983))의 內容分析을 통한 아래 논문에서도 그 뿌리가 일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李禎秀, “북한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전체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24-130.

북한에서 이처럼 새로운 否定的인 主題를 양산해 내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현 북한체제가 처한 대내외의 여건을 反證해 주고 있다. 이는 바꿔말해 북한이 그동안 主唱해 왔던 ‘낡은 사상’(個人主義·資本主義의 각종 폐해 등)에 대한 鬭爭 이외에도, 북한체제의 현상 유지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指導層이 새로운 부정적인 주제들을 제기하여 정치사상교양을 한껏 강화함으로써 외부세계의 변화 조류가 북한 내부의 體制改革으로 이르지 않도록 엄격히 빗장을 거는 선택을 한 것은 일종의 自衛手段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2) 教科書를 통해 본 事例的 接近

북한 政治社會化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살핀 대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정치사상교양’ 부문에서 개괄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북한 文獻들 역시 하나같이 教養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쳐, 具體的이고 體系의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정치사상교양의 내

용들은 모두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강화”
 27) 되어야 하는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實
 證的인 사안들은 북한의 현행 교과서에서 추출하는
 것이 效果的일 수 있다.

북한에서 현재 사용되는 각급 학교 교과서는 방대
 하므로 國語 教科書의 경우를 주 대상으로 하여 여
 타의 것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교과서 내용은 거의 모두 政治
 思想教養과 연관되어 있는데, 인민학교는 최소 67%,

<국어 교과서의 각 단원별 주제 분포>²⁸⁾

주제 구분	김일성		김일성	대남·대미	공산주의	언어생활	계
	김일성	김정일	가계	투쟁심	도덕교양		
인민학교 (1-4)	32(20)	25(16)	7(4)	13(8)	31(19)	53(33)	161(100)
고등중학교 (1-3)	16(21)	9(12)	7(10)	10(13)	12(16)	21(28)	75(100)

()는 구성비율

27)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앞의 책, p.44.

28) 金淳培, “북한 교과서 분석”(서울: 통일원, 1992), pp.1-2.

김교수는 모두 48권의 현행 교과서(인민학교 15권, 고등중학
 교 33권)를 대상으로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등중학교는 최소 72%로 나타나 있다. 이 수치는 그나마 교과서의 각 단원별로 반영된 主題를 중심으로 뽑은 것이다. 표에서 ‘언어생활’로 분류된 것은 읽기, 쓰기, 말하기, 文法에 해당되는 부문인데, 이 부문 역시 政治思想教養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시는 아버지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그리고 들끓는 생활에서 받은 시인의 느낌을 가장 뜨겁게 노래 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무장시키며…”(고등중학교 2학년, 국어 제3과 「시를 잘 읊자면」, p.7)하는 식의 概念規定이 그것이다. 이런 예를 일일이 列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민학교 1학년인 여섯살 된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言語生活의 사례를 보면,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글씨를 잘 써야 하겠습니다>”(인민학교 1학년, 국어 제11과 「우리 글자를 쓰는 차례」, p.31)는 것도 그렇다. 결국은 教科書 내용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정치사상교양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치사회화의 屬性이 스며든 例

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部門이나 科目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서 한가지씩만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좁고 고운 비단에다 흰 쌀이래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 봤더니 미제놈들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동무들에게 실어 간대요.”

(인민학교 1학년, 국어 제10과 「내동생」, p.28)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눈사람을 만드시려고 마당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어머니, 산에서처럼 왜놈장교를 만들어 놓고 왜놈까기를 하겠어요》...세번째에는 눈알이 빠지고 네번째는 귀가 날아갔습니다...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는 집으로 달려가시여 설설 끓는 물을 퍼다가 콧 피부으셨습니다.”

(인민학교 2학년, 국어 제24과 「눈사람」, pp.62~64)

“<화분에 김정일화가 5송이 피었다>에서 5는 차례를 나타내는가? 개수를 나타내는가?”

(고등중학교 1학년, 대수 제1장 「자연수」, p.3)

“미제 승냥이 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의 한 도

시에만도 학교에 못가는 어린이가 2,350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서 a명은 구두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빌어 먹고 있습니다. 빌어먹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민학교 3학년, 수학 「더하기와 덜기」, p.21)

“아버지 원수님의 교시대로 로동을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일하기를 즐겨하는 소년단원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인민학교 3학년, 국어

제12과 「동화 <놀고 먹던 꿀꿀이>를 읽고」, p.33)

“...남조선 괴뢰 도당은 남조선의 지하자원을 미제놈들이 마음대로 빼앗아가게 통채로 내맡기고 있습니다.” (인민학교 4학년, 자연 「지하자원」, p.1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이 건강하여 오래 살려면 이가 튼튼해야 합니다.>”

(고등중학교 4학년, 생물 「소화와 흡수」, p.47)

“우리나라 남녘땅 짓밟는 원쑤, 화약냄새 풍기며 미쳐 날뛰다. 어렵었다. 원쑤놈 얼씬 못하게 우리는 명사수 일당 백이다(후렴).” (인민학교

3학년, 음악 제9과 「나는야 꼬마 명사수」, p.20)

“취주악곡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는…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을 이 땅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고…굳은 결의와 신념을 담고 있다.”

(고등중학교 2학년, 음악 제3과 「취주악」, p.7)

앞에서 例示한 교과서 관련 내용 중에서 다른 科目도 그러하지만 音樂의 경우는 특히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에 관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즉 음악의 노래 가사를 重要視하여 ‘가사에 의한 동기의 설정’(고등중학교 1학년, 음악 p.17)을 강조, 政治思想教養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音樂教科書들은 모두 제1과 김일성 찬양 노래, 제2과는 김정일 찬양 노래로 일관되어 있다.

북한 교과서의 이런 현상은 비단 教科書에 그치지 않고, 모든 表現物(言論 포함)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연과학의 專門書籍에까지 김일성·김정일의 상식적, 일상적인 ‘말씀’들이 인용되고 해석의 척도로 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 指導層의 존재나 의도를 중심

으로 하여 그것을 무조건 崇拜해야 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주제의 골간을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는 共產主義 德性을 찬양하고 그를 따라 배우자는 것이 또한 지배적인 내용이다. 즉 集團主義精神과 勞動愛護, 勤儉節約精神의 체득과 실천, 북한식 사회주의 必勝不敗 주장 및 실현에 대한 신념 등이 그러한 범주에 든다.

이와 함께 부정적인 투쟁 주제에 관한 사상교양의 深度 또한 만만치 않다. 북한식 社會主義를 주장, 실현해 가는 데 저해되는 일체의 “계급적 원수” 對象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주제들은 하나같이 부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긍정적인 내용과 劇的이리만치 對比를 이룸으로써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주제와 내용, 용어조차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여 政治敎化的 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북한 정치사회화의 기본속성을 잘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다. 北韓 政治社會化의 方法과 媒體

(1) 다섯가지 ‘革命的’인 社會主義 教育方法²⁹⁾

첫째, 깨우쳐 주는 教授 教養方法이다.

이는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야기·談話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 하고, 배우는 학생은 討論과 論爭의 ‘問答式 方法’을 통해 잘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解說과 說服’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基本方法’은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항일혁명 인물들의 투쟁’이나 ‘누구누구를 따라 배우자’는 事例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理論教育과 實踐教育, 教育과 生産勞動을 결

29) 이 다섯가지 방법은 「테제」원문의 핵심부분을 요약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원문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앞의 책, pp.47-52에 수록됨.

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로는 金東圭, “교육심리·방법론”,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167-204 참조하기 바람.

합시키는 방법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혁명의 실천으로 써먹어야 ‘산 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生産勞動에 직접 참가하여 勞動階級の 혁명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의 구분을 막고, 理論과 實踐을 결합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理論的인 基盤도 되고 있다.

셋째, 組織生活, 社會政治活動의 강화 방법이다.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의 품성과 태도를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政治生活’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組織生活를 통해서 ‘사상교육’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치활동’에 參與케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에는 「조선소년단」(인민학교 2학년인 7세~고등중학교 중등반인 13세까지)에서, 그 이후의 청소년 시절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14세~30세)에서 組織生活를 하게 된다.

특히 소년단의 활동은 ‘과외교양기지’(平放, 1991.

4. 14. 등)로 일컬을 만큼 중시하고 있다.

또 성인이 되어도, 각자의 職場組織 외에 각종 職業組織들에 참가해야 하므로, 평생동안 조직생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 조직의 壁은 二重·三重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직생활의 틀을 벗어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언제나 조직을 우선하는—즉, 個人喪失의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결합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다른 정치사회화의 매체인 家庭과 ‘社會教養手段’(언론매체)들을 잘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言論媒體의 역할은 ‘사회의 거울’로서가 아니라 ‘당의 얼굴’로서 중시되어 있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家庭의 역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共產化 초기 단계에서 家庭의 정치사회화 役割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였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족의 思想 敎養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1966년 金日成 연설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1977년 9월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가정을 혁명화하여”³⁰⁾ 그 “혁명적인 영향”을 子女들이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얼핏 보면 學生들의 정치사회화를 가정에서부터 넘겨받아 ‘국가적 보장사업’³¹⁾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과 背馳되는 듯하다. 다시 말해 태어난 지 3개월 후부터 託兒所에 들어갈 수 있고,³²⁾ 幼稚園도 義務적으로 입학시킴으로써³³⁾ 국가에서 의도하는 대

30)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앞의 책, p.51.

31) 위 테제, p.43 및 p.61.

32) 북한의 탁아소 입소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의하면 ‘강제 입소’는 아니지만(제3조), 1966년에 이미 60~70% 이상의 어린이들이 입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일성,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것은 보육원, 교양원들의 영예로운 혁명의무”(1966. 10. 20. 연설),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3), p.228.

33) 북한에서는 1974년에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100% 입학해 다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1984), p.37.

로 최대한 人間改造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
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血緣主義, 家族主義에 대한
문화적 지향을 제한적이거나 인정치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學校前 教育, 學校教育, 成人教育의 병진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
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전
제아래,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
이 教育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공산주의 혁명사상교
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成人教育에
이르기까지 一貫되어 있음을 이미 파악하였다.

북한의 어린이, 學生들은 물론 成人들까지 하나같
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를 行動에 옮기는 것은 이
처럼 각 ‘교육공정’이 組織的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
문이다. 성인들의 경우 ‘토요학습, 수요강연회에서
매일 2시간 학습’³⁴⁾을 義務化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이다.

34) 앞의 테제, p.52.

(2) 動員과 統制에 의한 再社會化의 強化方法

이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북한 정치사회화의 全般的인 過程과 관련된다.

따라서 重複을 피해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우선 勞動力 競爭運動의 例를 보자. 이 경우에는 개인 혹은 집단간의 노동력 동원 결과에 따라 정치사상교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나하는 평가를 내린다. 이를 통해 生産性的의 증가는 물론 思想改造運動으로서의 성과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集團動員的 特성을 갖는 選舉行事나 각종 文化藝術活動에의 참여, 그리고 일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개되는 대규모 群衆運動(관련 행사, 캠페인, 구호 제시 포함) 등도 북한 政治社會化의 方法과 媒體를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통제에 의한 再社會化의 강화방법으로는 특정 계기를 통해 ‘주민성분조사’를 실시, 核心階層·基本階層에게는 더욱 충성을 요구하고, 敵對階層에게는 불만이나 반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人民班(15~20세대 단위)討論會도 교양적 효

과는 물론, 효율적인 統制手段으로서 적절한 예이다.

이처럼 동원과 통제에 의한 再社會化를 多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서 集團主義原理를 집약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口號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즉 실제로는 “전체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한 전체는 있을 수 없다.”³⁵⁾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4. 北韓 政治社會化의 結果와 展望

가. 劃一화된 ‘鬭爭的·順從的’ 二重構造의 人間型

지금까지 검토해 본 북한의 政治社會化 과정은 한편으로 인간정서의 國有化 내지 감정연출의 劃一化도 가능하게끔 政治敎化的 特性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정치사회화를 政治體制에서 지향하고 의도한 대로 완

35) 任鍾琳, “북한의 敎育·문화”, 『민주통일론』(서울: 통일연수원, 1989), p.173.

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상식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의견상 相反된 듯 보이는 이 두가지 측면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북한은 그동안 強制的이고 意圖的인 政治社會化를 실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金日成의 個人的 權威와 그에 대한 절대적인 追從이 그 핵심이 된 것은 잘 아는 일이다. 또한 이같은 정치 사회화의 성과는 金正日 後繼體制로의 확립에까지 이어져,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劃一的인 人間型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투쟁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적’인 意識上的 二重構造를 갖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은 사상교양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 憎惡의 대상을 정해 놓고 鬪爭心과 敵愾心을 한껏 기르도록 한다. 즉 ‘미제와 일제, 남조선 파쇼 당국’에 대한 打倒鬪爭-解放運動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식 社會主義建設이나 祖國統一運動

에 매진하라고 지속적으로 다그치는 것도 역시 다른 측면에서의 투쟁인 것이다.

이에 비해 지극히 ‘순종적’인 측면도 있다. 한마디로 北韓體制에서 제시한 ‘길들이기’ 정치사회화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북한체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千篇一律的이고 機械的인 듯한 인간형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人性(personality)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결과를 참고할 만하다.

원래 人性이란 價値, 態度, 動機, 欲求나 信念 등 개인의 심리적인 속성들을 일컫는 것이지만, 개인적 성격에만 그치지 않는 社會的 現象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성은 바로 그 사회구조가 낳은 산물이며, 또한 逆으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적 인성이 社會構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³⁶⁾

이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인성의 접근방법으로 社會構造의 條件을 정밀 분석하는 것

36) 徐載鎮·金台鎰, “북한주민의 人性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5 및 p.12.

은 적절하리라고 본다. 즉 북한 주민의 人性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만이 아닌 社會的, 歷史的, 文化的 제반 현상을 병행 분석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사회의 傳統文化的·歷史的 背景과 經濟的인 土臺, 理念的 體系, 政治的 要因들과 支配엘리트의 性格, 人間改造事業 등을 분석하여 북한 주민의 인성이 臣民的(subject) 임³⁷⁾을 규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신민이라고 함은 絶對君主時代의 臣下와 같은 인간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북한사회 統合이나 體制固守의 이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나. ‘위로부터의 教育’의 限界와 展望

그러나 이처럼 인간의 個性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모든 사람들을 共產主義라는 하나의 굴레로 완전 개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한 북한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

37) 같은 논문, pp.25-91, p.109.

하는 人間型이 주위 환경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이르러서는 疑問의 여지가 많다.

결론적으로, 人間本性和 本能에 위배되는 교육이나 政治社會化는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1989년 이래 蘇聯·東歐의 社會主義圈이 무너지는 사례에서도 잘 보았듯이, 미래의 이상만을 내건 현실의 박탈은 그 자체가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아무리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부르짖고 교육시켜도,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고 허상이 드러나 일단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 견잡을 수 없이 무너졌던 것이다.

지난 시절 蘇聯과 中國에서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神格化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거꾸로 罪人視되거나 점차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제아무리 偶像化를 위해 탄압을 하고 숙청을 하며, 앵무새식 교육을 해도 언젠가 밝혀질 眞實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과거 소련에서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엄격히 注入해 왔으나, 改

革·開放의 태풍 앞에 가장 먼저 수습대에 오른 것은 날조된 역사교육과 사회주의 찬양일색인 교과서 내용이었다.³⁸⁾ 이에 따른 靑少年들의 價値觀混亂은 오늘날 옛 소련이 풀어가야 할 큰 숙제 중의 하나이며, 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집단적이고 협동적, 비이기적인 가치개념이 옛 소련사회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달라진 사회에서 또 한번의 새로운 人間型을 지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북한 역시 지금으로서는 ‘위로부터의 改革·開放’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같은 역사적인 현실 앞에 예의일 수 없다.

비록, 철저한 위로부터의 강압식 교육으로 인해 短期的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작은 변화의 조짐들은 이미 자꾸 쌓여가고 있다.

근래에 들어 북한의 言論에 나타난 ‘부정적 양상’

38) 「한국·러시아 교과서 세미나」(1992. 8. 6,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잔스키 교육부 인문교육과장은 새로운 교과서 정책의 개편방향으로 인간중심화, 자유와 책임성, 민주화, 개방성 원칙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들은 북한 指導部가 안고 있는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金日成敎示 학습에 대한 忌避現象 ② 당·조직생활의 태만과 외면 ③노동을 기피하거나 勞動規律 위반 ④原資材 낭비와 국가재산을 濫用하는 사례 ⑤技術神祕主義, 保守主義, 資本主義思想 등 ‘낡은 사상’의 잔재를 지적 ⑥官僚主義, 要領主義, 形式主義的 事業作風에 대한 비판 ⑦청년인테리의 反社會的 行動 등을 북한 스스로 자주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否定的인 측면들은 개인의 수준으로 보면 일하면서도 일부러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주, 無知한 채 하기, 시치미 떼기, 좀도둑질, 상호 비방과 떠넘기기, 사보타지 등을³⁹⁾ 不可避하게 한다. 또한 集團的으로 정치사상교양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추진되었다고 하더라도, 大衆들의 具體的·實質的인 欲求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信心의

39) 徐載鎮 외, 앞의 논문, p.101.

위기⁴⁰⁾가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를 통한 보다 직접적인 言及과 改善要求가 줄을 잇게 되고, 이는 바로 북한 政治社會化 문제의 深刻度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김정일의 대표적인 논문 중의 하나인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관련 부분이 그 예이다. 이 글에서는 “...주체사상 교양을 몇 프로로 하고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몇 프로로 하겠다는 식은...아직도 주체사상 교양 밖에 또 다른 무슨 사상교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는 “로작학습은 어디까지나 원문을 놓고 해야지...형식주의적으로 집행하고...그것을 해석한 제강이나 참고자료 같은 것만 보고 있다.”⁴¹⁾면서 경고하고 있다.

40) 徐鎮英, “북한 권력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계획 연구”(서울: 통일원, 1990), pp.22-27.

서교수는 이밖에 사회주의 국가 변혁운동의 일반적 원인으로 당·국가체제의 비민주성과 관료주의, 장기적 경제침체와 체제위기, 사회적 다원화와 사회체제의 위기, 체제개혁의 국제적 요인들을 꼽고 있다(pp.27-39).

41)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p.12 및 p.28.

이는 북한 사회에서는 적어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 言明이다. 絶對的인 주체사상 교양이나 수령의 노작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政治思想教養이 形式主義的으로 되어가는 등의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당세도와 관료 주의적 책동’⁴²⁾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政治思想教育을 改善·強化’⁴³⁾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음은 어찌면 당연한 歸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金日成 역시 ‘당과 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⁴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모두 변해야 할 상황에 놓인 북한 사회의 轉換期的 事情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된다.

42) 노동신문, 1991. 5. 27.字.(김정일의 5. 5.字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담화문)

43) 전국교육일꾼대회(1992. 9. 20.~22) 최태복(당 교육담당비서) 보고문.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1992. 9. 20.字.

44) 1992년·1993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5. 結 言

그러면, 이와 같은 북한의 政治社會化 현상들에 대해 우리가 統一問題와 관련시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남과 북은 통일의 當爲性에 대해서는 당차고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이 다소 성급하지 않느냐는 憂慮도 나온다. 이는 바꿔 말해 政治的 統一을 서둔다는 말일 것이며, 그에 土臺가 되어야 할 남북의 경제·사회·문화적 統合基盤이 취약하다는 지적일 것이다.⁴⁵⁾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는 이런 기본문제에 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정치사회화 결과로 나타난 획일적인 인간형과 그 限界性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북한 체제의 變化樣相과 그 進展速度를 보다

45) 非政治的 통합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金京雄, “統一, 文化的 對備가 시급한 理由”, 『월간 중앙』(서울: 중앙일보사, 1992년 3월호), pp.394-403.

정확히 내다보는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相異한 政治社會化 과정으로 인해 앞으로 남북 사이에 당면하게 될 物理的인 障壁만이 아니라, 精神의 障壁을 극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

南北韓은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식으로 발효시킨 이래 그 실천과정에서 甲論乙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 합의서가 원만하게 실천될 때, 우리 民族問題의 근본적인 부담들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東西獨의 통일 이후에서도 보듯이, 양쪽 住民間의 異質化現象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동독인들은 50년 이상 나치와 공산당 독재를 겪음으로써 사고방식이나 생활관, 행동양식 등에서 서독인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⁴⁶⁾

46) 동서독인들의 정신적 장벽문제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梁榮植·金京雄,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 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문화예술논총』 제3집(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pp.11-41.

오늘, 獨逸人들은 이 이데올로기가 남긴 깊은 傷處를 아물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코 서들지 않고 마치 온갖 쓰레기로 오염된 理念이라는 河川의 公害를 민족이라는 맑은 샘물로 씻어내듯이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을 보는 基本視角은 비관스럽다거나 두려움 같은 一方的·表皮의인 데서 벗어나, 민족 성원으로서의 공통분모를 되찾고 인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希望에 찬 두렛일을 한다는 인식이 요청된다.

머리글을 통해 제기한 바 있듯이, 남북은 이제 더 이상 각기 두개의 氣筒으로 內燃만 하고 있을 시점에 놓여 있지 않다. 최소한 연료의 폭발과 연소라는 本來的인 기능조차 지금처럼 서로 有機的이고 發展的인 並存이 아니라, 상호배타적이며 자기소모적으로 對峙할 때, 그 存在意義는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역사와 세계를 주목하는 民族共同體의 회복이 남북 모두에게 주어진 存立과 發展을 위한 前提要素임을 깨닫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統一教育(또는 民族共同體教育)

에 관한 重要性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統一教育은 統一過程뿐 아니라 統一 以後까지를 내다보는 長期的이고 豫備的인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룬 다음 민족성원 사이의 현실적·정신적 장벽을 解消하는데 一次的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을 民主市民教育으로의 역할로 전환시킬 데 대한 대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일들은 民族社會의 앞날을 기약하는 분수대와 같은 底力으로 펼쳐져야 하고, 현재의 통일교육에도 당장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육은 도식적인 固定觀念에 얽매이거나 책상머리에서 무책임하게 일삼아 하는 短見으로 그칠 수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맡은 이들은 民族史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등불의 役割을 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할 줄로 안다.

北韓의 政治社會化 過程 (통일총서 / 21)

1993年 2月 17日 印刷

199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躑2洞 山73-13

電話：901-7123~4

印刷處：江聞印刷社

(통연 93-2-9)

